궁남지다리

부여 궁남지다리와 면천 군자정돌다리

궁남지는현존하는우리나라연못가운데최초의인공조원이다.「삼국사기」에는무왕35년(634년)조에“3월에는궁 남쪽에 못을 파고 20여 리나 먼곳에서 물을 끌어들이고 못 언덕에는 수양버들을 심고 못 가운데는 섬을만들었는데방장선산을모방하였다”는 내용이 나오는데 이 기사는 바로 궁남지를 두고말한것이다.

궁남지, 현존하는 최초의 인공 조원

궁남지는전체적으로둥근연못가운데에 작은 섬이 있는데 당시의 귀족과 최고 권력자들의 유흥장으로 이용되었다. 다리 주위 못가에는버드나무가 한가롭게가지를 휘늘이고 있다. 연못 동쪽에서 주춧돌이 발견되고기와조각이흩어져나와이궁남지가궁성의이궁에따르는원지였던것으로추측되며, 주춧돌이별궁건물의흔적이아닌가추측된다. 근처에는 3단으로 짜 올린 팔각형 우물도있다.「삼국사기」에는또“무왕39년(638년) 3월에 왕은 비빈과 더불어 큰 연못에배를띄우고놀았다”고하였으니바로이 궁남지에서 뱃놀이도 즐겼던 듯하다. 궁남지 바로 동쪽에 있는 화지산의 망해정이 푸른연못에그림자를드리워신선경을방불케 했다는기록도「삼국사기」에전한다.

궁남지는 신라 조원의 미묘한 맛을 보여주는 안압지보다 40년 앞서 만들어져 안압지의 모형이 되었을 것이라고 보기도 한다. 그러나, 직선과 곡선을 조화시켜 한껏 묘미를 살린 안압지가 그저 둥글게 조성된 궁남지를 본떴으리라고 생각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또한, 원래지금보다훨씬넓었던것이 많이 메워진 상태라고 하니 원래의 모습을 그대로간직하고있는지도의심스럽다.

하지만 둥근 연못 주위의 면적은 1만 3,772평에이른다. 1965년에정비작업을하였고 다리와 누각은 1971년에 세운 것이다. 다리는돌기둥을세우고상판과난간을나무로처리한아름다운목조다리이며, 사적제135호이다.

서동설화와 무왕의 신이성

궁남지 초입에는 서동설화(薯童說話)를 새겨 놓은비가있다. 이 설화는「삼국유사」무왕조에실려전한다.

사비시대 왕궁 남쪽 못 가에는 궁궐에서 나와 혼자 사는 여인이 궁남지의 용과 교통하여아들을낳았으니, 그가바로백제제30대 왕인 무왕 장(璋)이다. 그의 어머니가 용과교통하여아들을낳았다고하였으니아마도그의아버지는왕이거나태자였을것으로 짐작된다.

그러나, 궁궐 밖의 생활이 궁핍하여 생계

유지를위해그는마를캐다팔았다. 그래서 아명이 서동이 되었던 것이다. 서동의 어머니는가난에도불구하고그를정성으로키웠다. 그는기골이장대하고효성이지극한장부로성장하게되었다. 그러던어느날밤궁중에서 한 노신이 찾아와 왕의 밀명을 전하였는데신라의서라벌에잠입하여국정을탐지하라는 것이었다. 서동은 기꺼이 받아들여 마를 파는 상인으로 위장하여 신라에 잠입해탐지활동을충실히수행해나갔다.

그러던 어느날 신라제26대 진평왕의셋째 딸인 선화공주와 마주치게 되었다. 이후 두 사람의 만남이 잦아지면서 사랑이 싹텄다. 그러나, 서로는국적과신분이달라맺어질수없는사이임을알았다. 헤어질수없었던 두 사람은 지혜를 짜서 서동요를 만들어 퍼뜨리기로 다짐했다. 서동은 서라벌의 아이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 가서 마를 나누어 주며노래를부르게하였다.

'선화공주님은 남 몰래 시집가서 서동 도련님을 밤이면 몰래 안고 간다'는 노래였는데, 이노래는아이들의입을통해온나라에 퍼져 나갔다. 결국 대궐에까지 알려지게 되어 오해를 받게 된 선화공주는 귀양을 가게 되었다. 그러나, 이를미리알고있던서동이 선화공주를백제로데려와행복하게살았다는사랑이야기이다.

그러나, 무왕이 천도를 하려고 했고 미륵사를지어지금도그석탑하나가남아있는 전라북도익산의마룡지에도마찬가지의전설이전한다. 또기록에따르면무왕자신이 이 궁남지를 팠으니 연대 기록도 맞지는 않는다. 무왕과관련된이곳과무왕의신이성

군자정중수비

군자정돌다리

이강조되어전설화된것이라하겠다.

군자정으로 건너는 돌다리

충남 당진군 남단의 면천면에 자리한 군자지는 면천객사의 동쪽에 있다. 군자지는 고려 공민왕 때 지주사 곽충룡 군수가 만든 것으로 그 가운데에 연꽃을 심었다. 익재공 이제현이 이것을 칭송하여 말하기를 "꽃과 열매가동시에맺으며진흙에서나왔어도물들지아니하여군자와같아서염계에게서사랑을받았다. 이것이못이름을군자지라한 이유이다"라고 하였다. 지금은 무너져 도랑으로되고다만읍지에남아있을따름이다.

"내가이군에부임한다음해인계해년에 연꽃이 홀연히 무너진 못 두서너 곳의 둥근 연꽃밭에서자라났는데연꽃은잡초가운데 있었다. 물은 얕고 말라붙어 연잎이 시들고 쇠약해졌다. 나는 그것을 이상하게 여기고 또 아까워서 애석하게 여겼다. 이에 아전을 시켜그못을치게하고사방의흙을모아가운데에둥근섬을만들고그위에팔각의작은정자를만들고연꽃백개를심고고기천마리를넣고둘레에는복숭아와버드나무를 심고안에는온갖꽃을심었다. 못이네모진 것은땅을상징하고, 섬이둥근것은하늘을 상징한 것이요, 정자가팔각인 것은 팔주를 상징한 것이고, 꽃과 나무는 만물을 상징한 것이다."

군자정은 면천초등학교 옆 군자지(연당) 한가운데있는정자이다. 이연못한가운데 있는군자정도곽충룡이만든것으로알려져 있는데, 그후피폐되어정자가허물어진것을 강희 기원후 기해년에 복지겸의 후손 복지구가다시세웠다는기록이군자정중수기에 기록되어 있다. 강희 기원후 기해년이면 조선조 숙종 45년, 서기로는1719년에 해당한다.

군자정을 중건하면서 원형보다 축소하여 육모정으로지었는데원래의주춧돌이지금도남아있다. 이중수기에는낭관호와군자정이 전부터 있어 역대 관헌의 보호를 받아오던 중 곽충룡, 이상만 등이 중수하였다고 기록하고 있다. 군자정 옆에는 이태백이 썼다고 하는 '낭관호'라는 음각된 빗돌이 서 있다.

군자지는 오랜 세월이 흐르는 동안 모래로 메워져 보기 흉한 모습이었으나 1988년에준설작업을하고내안을돌로쌓아새로 단장하여지금의모습이되었다. 또한, 1994년 건강한 국토 가꾸기 사업으로 팔각의 정자와사각의연못을복원, 관리해오고있다.

한편, 군자정으로 건너는 돌다리는 자연석 네 개로 구성되었는데, 길이 7.4m, 폭 65cm로 고려 때 축조된 것으로서 우리의 중요한 문화유산이다.

손광섭
광진건설회장 · 청주건설박물관장